

## 한국인에서 초기 복막평형검사를 이용한 용질 이동군의 재평가 : 단일 기관 연구

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황은아 · 곽진호 · 진규복 · 성정훈 · 한승엽 · 박성배 · 김현철

**목적** : Twardowski가 제안한 복막평형검사 (PET)는 복막투석 환자의 용질 이동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적절한 투석 처방을 위한 지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검사법이다. 하지만 이는 구미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인종에 따라 PET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. 연구자들은 한국인 복막투석 환자에서 PET 기준치를 설정하여 종래의 PET 기준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.

**방법** :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계명의대 동산병원에서 말기 신부전증으로 복막투석 치료를 시작하고 투석시작 1개월 후, 6개월 이내 PET를 시행한 환자 155명을 대상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.

**결과** : 대상 환자는 총 155명으로 복막투석 치료를 시작하고 평균  $1.9 \pm 1.0$ 개월에 PET를 시행하였다. 이들의 평균 연령은  $51 \pm 13$ 세, 남녀비 1:0.9, 평균 건체중  $59 \pm 9.1$  kg, 평균 체표면적  $1.63 \pm 0.15$  m<sup>2</sup>였으며 원인 신질환이 당뇨병인 환자가 71예 (45.8%)였다. 이들 환자의 주입 4시간 후 평균 D/Pcr 치는  $0.68 \pm 0.11$ 로 기존의  $0.65 \pm 0.15$ 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고 ( $p=0.000$ ) 평균 D0/D4glu 치는  $0.32 \pm 0.08$ 로 기존의  $0.38 \pm 0.12$ 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( $p=0.000$ ). Twardowski 분류에 의한 고 이동군은 19명 (12.3%), 고평균 이동군 66명 (42.6%), 저평균 이동군 65명 (41.9%), 저 이동군 5명 (3.2%)이었다. 본원에서 시행한 주입 4시간 후의 D/Pcr치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용질 이동군을 구분하였을 때는 고 이동군이 22명 (14.2%), 고평균 이동군 49명 (31.6%), 저평균 이동군 65명 (41.9%), 저 이동군 19명 (12.3%)으로 Twardowski 분류법에 비해 저 이동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( $p=0.005$ ). 비당뇨군 및 당뇨군, 성별에 따른 4시간의 D/Pcr 치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60세 이상의 환자에서 60세 이하에 비해 4시간의 D/Pcr 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( $0.72 \pm 0.13$ , vs.  $0.67 \pm 0.1$ ,  $p<0.05$ ).

**결론** :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복막투석환자의 평균 용질 이동능이 Twardowski가 제시한 값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Twardowski 분류에 의한 저 이동군의 비율이 본원의 분류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. 따라서 기존의 Twardowski의 분류는 저 이동군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지침으로 한 복막 처방이 한국인에서도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.